

有關團體消息

▲(社)自然保護中央協議會(회장 鄭英昊): 10월 21日 世宗文化회관 대강당에서 서울특별시와 共同主催로 「東洋思想과 自然」주제의 자연보호강연회 개최. 연사는 한국국립공원협회 李賢宰이사.

▲(株)大韓山岳聯盟(회장 任哲淳): △遠征隊 發隊式: 동연맹은 한국 최초로 티벳령에 있는 시사광마(8021m) 및 초오유(8201m) 2개봉 연속 등정을 위한 원정대 발대식을 8월 16일 오후 6시 서울 돈화문남쪽 이화회관(전화 765-2124)서 갖는다.

△第14回 山岳인의날 行事: 동연맹은 지난 9월 15일 제14회 산악인의 날을 맞아 동일 오후 1시 江原道 春城군 서면 삼악산에서 단합산행을 했는데 각자 각자 도시락을 준비했다.

▲(社)全國農業技術者協會(會長 柳達永): 農民의 精神·技術·生活革命으로 복지농촌건설을 목표로 1960년에 창립된 全國농업기술자협회는 10만 회원들의 힘으로 700평 규모의 농업기술진흥관을 마련했다. 동회는 동진흥관을 일반에 공개, 교육장, 숙박시설, 식당, 주차장, 기타편의시설을 곁흔식장, 각종 연회장으로 염가봉사하게 되었다. 평일 예식시

는 식장비(200석 강당)를 50% 할인한다.

△주소: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301-87 電 794-7270, 0764, 795-1748.

▲(社)韓國山岳會(회장 丁明植): 지난 9월 16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코리아나호텔 22층 홀에서 한국산악회 창립 46주년 기념리셉션을 개최. 동 리셉션은 지난 3월 9일에 열린 동회의 91년도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던 丁明植회장(浦項製鐵 社長)이 주재하였다.

▲綠色黨(가칭) 창당준비위원회: 綠色人의 代辯誌 「녹색의 대안」 8月 創刊號 發刊 大韓綠色黨(가칭) 창당준비위원장 宋淳昌씨의 「綠色이란 무엇인가?」 제목의 卷頭言과 신철호씨(貞陵女商敎師·대한조류협회 생태연구위원)의 특별기고 “DMZ, 綠色地帶” 「各國의 綠色賞 순방과 現況」 金允亨당원의 「政府의 現환경정책에 대한 問題點 考案」 등이 실려 있다. 1面 表紙는 “한국의 녹색당 창당의 기수” 표제하에 위원장 송순창씨의 人物사진을 크로즈업시켰다. 창당이념과 창간호 발간취지 담아 각계에 배포. 非賣品·4×6倍版 44面.

R-TV

구들장 廢石場서 毒劇物 흘러

침전물끼고 물고기사라지면 危險信號

9월 19일 밤 10시 KBS-1TV의 집중기획물 「농촌 환경오염실태 고발」이 방영되었다. 도시의 환경오염, 교통, 소음문제 등에 밀려 소홀하게 다루어온 농촌 환경오염도 심각한 수위에 올라있음을 고발했다. 한 예로서 이 프로에서는 食水源인 河川 上流의 수질보전문제를 고발한 것이라 꽤 중요한 지적이다. 20여 년전에 폐광된 구들장採石場을 사업자가 原狀대로 흙을 덮어 회복시키지 않은 까닭에 구들장石材 폐허에 빗물이 고여 人體에 害로운 黃色의 물이 흘러 河床에 침전물까지 생겨 물고기가 흔적도 없어진데서 포착된 것. 忠北 報恩의 보청川의 오염 케이스. 현지

대학에서 조사한바 이 물속에는 鉛을 비롯한 인체나 생물에 치명적인 성분이 있었다는데 採石場 폐쇄시에는 반드시 허가청에서 원상회복을 시키는데 근대화 물결로 구들장사업의 급격한 쇠퇴가 빚은 비극의 여파가 아닐지? 아무리 업자가 망했을지라도 허가당국이 수습을 잘했으면 이런 비극은 면할 것이 아닐지 아쉽다. 忠北道民의 젖줄인 금강상류 미호천의 심각한 오염실태도 함께 고발되었다.

한편 지난 18일 파리에서는 세계의 山林學者 3천여 명이 모여 세계의 산림보호를 절규. 이날밤 보도에 의하면 아마존 雨林은 물론 아프리카 곳곳서 일어나는 야만적인 火田民의 森林 불태우기. 사하라사막의 확대, 南美 등지의 목축을 위한 伐木성행, 유럽 일대의 酸性雨피해 등에 대한 심각성을 인류에게 호소했다고. [浪]